

동호인 빌딩, 라움

Raum

서용식/ (주)수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eo Yong-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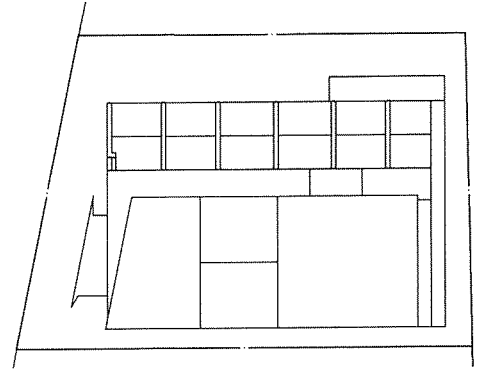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사진, 영상 등 예술관련업종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초 일련의 SI(Space Identity)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협소한 대지와 주변여건(도로폭, 인접건물)으로 인한 부족한 소요공간 규모의 차이로 가용공간의 극대화가 요구됐고 더 나아가 볼륨의 시각적 확장감이 외부 디자인의 전제가 되어야만 했다. 건물 네 면에 대한 배려는 어느 도심 건축물의 경우처럼 건축법상의 제약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로부터 출발한다.

북쪽 입면은 거대한 프레임 작업을 통해 실루엣과 같은 내피를 형성했다. 각각의 틀은 금속성의 구조물과 콘크리트 기둥, 보의 수직, 수평부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에서의 일상의 행위자체가 도심의 생활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동화상이 되도록 계획했다. 남쪽 연립주거에 면한 외벽은 열리고 닫히는 부분의 적절한 배려로 인근주거의 사생활 침해, 내부 공간에서의 개방감이라는 양면을 고려해 디자인했으며 동쪽 주거군변은 블라인드월로 처리됐다. 서쪽 정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북쪽 발코니에 접한 부분과 계단실을 포함한 주요공간 부분이다. 파사드는 세장한 수직창과 발코니 개구부를 통해 이분되는데 외벽 색상과 수평의 띠에 의해 다시 한 번 헤테로겐의 양상을 띤다. 3, 4층에 걸친 돌출창은 내부에서의 조망뿐 아니라 접근 경로를 통해 보행인들이 점층적, 시각적으로 접하게 되는 건물의 기대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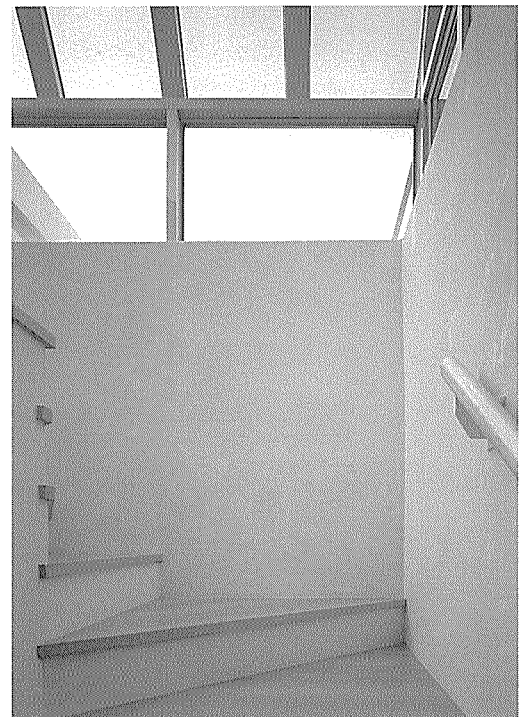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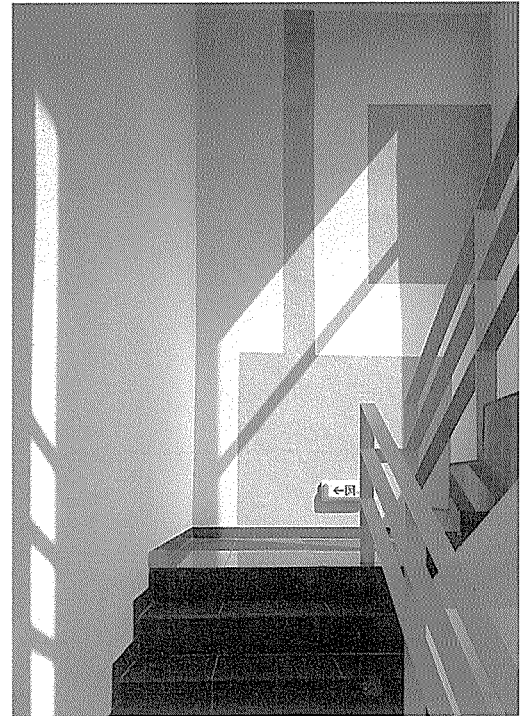
업무공간은 내부계획을 미리 고려해 모듈화한 평면계획이 이루어졌고 자연채광만으로도 주간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4, 5층은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복층형 주거공간으로 단독주택의 장점을 그대로 도입한 비람직한 도심형 주거공간의 프로토타입의 제안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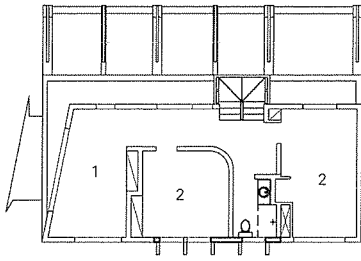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4-17		
용도	건축, 인테리어, 사진, 영상, 스튜디오 / 주택		
대지면적	260.60㎡	건축면적	150.46㎡
연면적	701.20㎡	건폐율	57.74%
용적률	213.23%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주차대수	5대		
외부 마감	외벽 단열 표준마감재(스토), 스틸풀러미트, 지붕 - 레인링크		
내부 마감	바닥 - 우드폴로링, 벽 - 테라코타, 천정: 레카빔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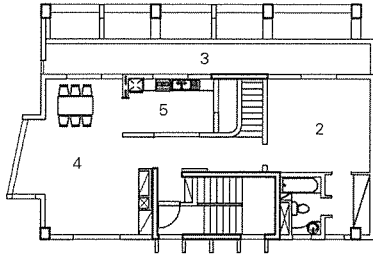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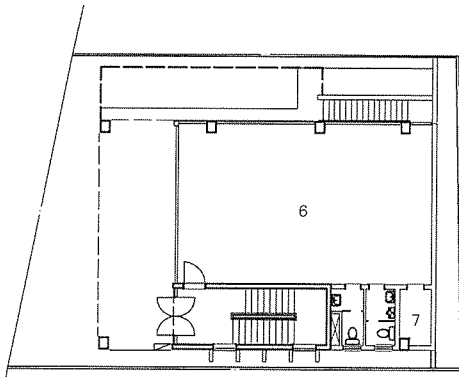
- 1. 서재
- 2. 방
- 3. 발코니
- 4. 거실
- 5. 주방
- 6. 근린생활시설
- 7. 창고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